

현대 독일어 제2형 분사의 형용사 전환에 대한 제약

류병래*†
충남대학교

Byong-Rae Ryu. 2002. Constraints on the Conversion of the Participle II in German. *Language and Information* 6.1, 41-69.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constraints on the conversion of the participle II in German, proposing a constraint-based lexical semantic approach. I argue against the widely accepted syntactic view which is based on the dichotomous distinction of intransitive verbs, which has been advanced by the Unaccusative Hypothesis [Perlmutter (1978)]. Several arguments are also given against the semantic view which is based on some aspectual notions such as 'telicity', 'transformativity' or 'terminativity'. The crucial constraints on the conversion of the participle II in German, it is argued, is instead two lexical semantic entailments,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 and *affectedness*. These and other lexical semantic entailments in the sense of Dowty (1991) are encoded into the multiple inheritance type hierarchy of *afpsoa*. The proposal made in this paper is based on the 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which is envisaged in a recent framework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제2형 분사(participle II),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HPSG), 유형(type), 유형위계(type hierarchy), 다중계승(multiple inheritance), 의미역, 상성(aspectuality), 수영향성 (*affectedness*), 이동동사 (verbs of movement)

1. 머리말

본 논문의 대상은 현대 독일어에서 동사의 제2형 분사(participle II)가 명사구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이다.¹ 영어를 비롯한 다른 인구어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에서도 모든 동사의 제2형 분사가 전환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현대 독일어에서 어떠한 동사들이 이러한 전

*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01년도 한국독일언어문학연구회 봄정기학술대회 (2001년 4월 13일-14일, 원광대학교)와 한국언어정보학회 월례발표회 (2001년 4월 21일, 대우재단)에서 발표되었다. 위 두 발표장에서 토론자로서 귀중한 의견들을 준 이민행 교수님, 송경안 교수님, 김종복 교수님 그리고 그 외 다른 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저자는 「언어와 정보」 익명의 심사자 두 분의 평을 통해 본 논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그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전화번호: +82-42-821-6396, E-mail: ryu@cnu.ac.kr

1. 영어와 같은 언어의 전통적인 문법서에 익숙한 독자들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2형 분사(participle II)라는 용어 보다는 과거분사 (past participle)라는 용어가 더 친숙할 지 모른다. 그러나 전통적인 독일어 문법서에서는 제2형 분사(participle II)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환현상을 허용하고 어떠한 동사들이 그 현상을 허용하지 않는지 우선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이 현상을 최근의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 틀 내에서 가정하고 있는 다중계승(multiple inheritance)을 허용하는 유형위계(type hierarchy)를 이용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제2형 분사의 형용사 전환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부분 의미론적 접근법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이 현상이 기존의 의미론적 개념으로 표상할 수 있는 특정한 한 속성에 의해 촉발된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이 현상은 독립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법틀 안에서 독립적인 통사적인 장치들의 조합적인 상호관계 하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접근법이다. 후자는 주로 통사론적 접근법에서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문법적 장치로서 대부분 수형도 기반의 기저구조상의 차이나 어휘적인 속성에 근거한 논항구조상의 차이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주의적 접근법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동사의 제2형 분사의 형용사 전환현상은 어휘적 의미 속성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 현상 자체는 독립적이지 않고 전체 문법틀 안에서 유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장치로서 문법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사의 어휘의미를 ‘유형’ (type)으로 추출하고 이들을 위계화시켜 ‘유형위계’(type hierarchy)를 설정한 다음, 각 어휘들은 설정된 ‘유형위계’에서 ‘다중계승’(multiple inheritance) 장치로 속성을 계승받도록 하는 ‘다중계승 유형위계’를 사용한다. ‘유형위계’에서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유형을 본 논문에서는 ‘수영향성’ (affectedness)과 ‘명백한 장소의 이동을 함축하는 이동’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주의적 접근법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논항구조와의 연계성은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면적 제약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논항구조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의미론적 분석이 HPSG 체계내에서 하나의 통합적 문법틀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1절에서는 기본적인 독일어 자료를 소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장들을 열거한다. 2.2절에서는 순수 통사론적인 접근법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2.3절에서는 동사의 ‘상성’(aspectuality)이나 ‘완결성’ (telicity)에 기반한 순수 의미론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3절에서는 새로운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상들을 어떻게 이 제안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자료 제시 및 문제 제기

2.1 기본적인 자료

현대 독일어에서 타동사의 제2형 분사는 일반적으로 명사구 내에 등장해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전통적인 독일어 문법서에서는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 (formation of attributive participle II) 혹은 ‘형용사 수동’ (ad-

jectival passive)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수식받는 명사는 제2형 분사로 실현된 어휘소가 정형 동사로 쓰인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되는 명사구의 핵심어로 나오는 명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1a)는 (1b)처럼 ‘누군가를 추적한 경찰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c)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추적 당한 경찰관’으로 풀이 될 수 있다.

- (1) a. der verfolgte Polizist
the chased policeman
b. der Polizist, der jemanden verfolgt hat (= (1a))
the policeman, who someone chased has
c. der Polizist, den jemand verfolgt hat (\neq (1a))
the policeman, whom someone chased has

이와는 반대로 전형적인 자동사인 *arbeiten* (to work), *lachen* (to laugh), *schlafen* (to sleep) 등은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허용하지 않는다.² 이미 타동사의 경우 명백히 드러났듯이, 자동사는 정의에 의해 능동문에서 타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존재하지 않고 주어로 실현되는 명사구가 유일한 명사구이기 때문에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 (2) a. Der Student hat gearbeitet
the student has worked
b. *der gearbeitete Student
(3) a. Der Gast hat gelacht
the guest has laughed
b. *der gelachte Gast
(4) a. Die Freundin hat geschlafen
the girl friend has slept
b. *die geschlafene Freundin

그러나 자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 부가어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기존의 정의로는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2형 분사형이 명사 부가어로 쓰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 아님이 분명하다.

- (5) a. Der Gast ist angekommen
the guest is arrived
b. der angekommene Gast
the arrived guest
(6) a. Der Teller ist gefallen
the dish is fallen

2. 본 논문에서는 표기법상의 규약으로 독일어 단어를 본문에 사용할 때는 고딕체를 사용하고, 유형의 표기 등 이론적 의미가 있는 원문을 표기할 때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b. der gefallene Teller
the fallen dish
- (7) a. Der Dieb ist eingeschlafen
the thief is fallen-asleep
- b. der eingeschlafene Dieb
the fallen-asleep thief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불가능한 (2)-(4)의 예문에 나타나는 자동사와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가능한 (5)-(7)의 예문에 나타나는 자동사들 사이에는 뚜렷한 통사적인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전자의 자동사들은 완료형을 만들 때 조동사로서 *haben* (to have)과 결합하고, 후자의 자동사들은 *sein* (to be)과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든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와 ‘완료형에서의 *sein*과 결합하는 속성’이 모종의 깊은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법적 현상의 연관성은 문맥에 따라서 완료형을 만들 때 *haben*과 결합하기도 하고 *sein*과 결합하기도 하는 동사들의 예에서 그 타당성을 얻는 듯 보인다. 왜냐 하면, 예문 (9)와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들이 완료형에서 *sein*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가능하고, 예문 (8)와 (10)에 예시된 바와 같이 *haben*과 결합하는 경우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³

- (8) a. Das Paar hat im Saal getanzt
the couple has in the hall danced
- b. *das im Saal getanzte Paar
- (9) a. Das Paar ist in den Saal getanzt
the couple is in the hall danced
- b. das in den Saal getanzte Paar
the in the hall danced couple
- (10) a. ?Der Junge hat den ganzen Nachmittag geschwommen
the boy has the whole afternoon swum
- b. *der geschwommene Junge
- (11) a. Der Junge ist über den Fluß geschwommen
the boy is over the river swum
- b. der über den Fluß geschwommene Junge
the over the river swum boy

이러한 추측이 타당성을 완전히 얻으려면 완료형을 만들 때 *sein*과 결합하는 자동사들은 모두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전형적인

3. 예문 (10)과 (11)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 *schwimmen* (to swim)은 완료형에서 *haben* (to have)과 결합하기도 하고 *sein* (to be)과 결합하기도 한다. *sein* (to be)과 결합하여 완료형을 만드는 경우 그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의 부가어로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다.

‘이동동사’ (verbs of movement)로 알려진 *kommen* (to come)이나 *gehen* (to go) 등의 동사는 분명 완료형을 만들 때 *sein*과 결합하지만 특별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2)-(13)에 예로 든 ‘이동동사’의 예는 이러한 추측이 타당성이 희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12) a. Der Gast ist gekommen
the guest is come

b. *der gekommene Gast

(13) a. Der Kurier ist gegangen
the courier is gone

b. *der gegangene Kurier

또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와 ‘완료형에서의 *sein*과 결합하는 속성’이 모종의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왕래발착’ 동사들도 특별한 부가어가 첨가되면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부가어란 일반적으로 (14)처럼 전치사구로 실현되는 방향 지시어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⁴

(14) a. Der Gast ist nach Mannheim gekommen
the guest is to Mannheim come

b. der nach Mannheim gekommene Gast
the to Mannheim come guest

그러나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와 ‘완료형에서의 *sein*과 결합하는 속성’이 모종의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을 다시 한 번 복잡하게 만드는 자료들은 *sein* (to be), *bleiben* (to stay), *werden* (to become) 등의 동사이다. 이런 동사들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완료형을 만들 때, 조동사로 *haben*이 아닌 *sein*만을 선택하는 동사들이다. 그렇다면 위의 추측이 타당하다는 가정 하에 이들 동사들은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허용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4. Zifonun et al. (1997)에서는 *kommen* (to come)이나 *gehen* (to go) 등 전형적인 이동동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단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가어가 등장하면, 부가어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견해도 동등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예문들의 문법성은 더 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가정되고 있는 ‘문법성’(grammaticality)과 ‘수용성’(acceptability)의 구분을 여기에서도 수용한다면, Zifonun et al. (1997)에 제시된 다음 문장들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비문법적인 문장’의 부류에 속하는 것은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i) a. Der Gast ist per Bahn gekommen
the guest is by train come

b. der per Bahn gekommene Gast
the by train come guest

(ii) a. Der Gast ist zu spät gekommen
the guest is too late come

b. der zu spät gekommene Gast
the too late come guest

- (15) a. Der Mann ist im Ausland gewesen.
the man is abroad been
b. *der gewesen Mann
c. ??/*der im Ausland gewesen Mann
the abroad been man
- (16) a. Der Mann ist zu Hause geblieben.
the man is at home stayed
b. *der gebliebene Mann
c. ??/*der zu Hause gebliebene Mann
the at home stayed man
- (17) a. Der Mann ist Professor geworden.
the man is professor become
b. *der gewordene Mann
c. ??/*der Professor gewordene Mann
the professor become man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와 ‘완료형에서의 sein (to be)과 결합하는 속성’이 모종의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자료들이 더 존재한다.⁵ *durchgehen* (to go through), *angehen* (to approach), *ablaufen* (to run off), *eingehen* (to enter into) 등과 같은 동사들은 완료형을 만들 때 *sein*과 결합하지만, 이들은 일반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핵심어로 등장하는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전환되어 쓰일 수 있다. 즉 ‘완료형에서의 *sein*과 결합하는 속성’은 자동사에만

5.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와 ‘완료형에서의 *sein* (to be)과 결합하는 속성’이 모종의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을 다시 한 번 복잡하게 만드는 자료들은 *passieren* (to happen), *begegnen* (to come across), *geschehen* (to happen) 등 ‘사건발생 동사’(event verbs)들이다. *passieren*, *begegnen*, *geschehen* 등과 같은 동사들은 분명 *sein*과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들지만, 명사 부가어로서 쓰이기도 하나 어색하다는 모국어 화자들이 많다 [Seibert (1993, p.15) 참고].

전반적으로 *passieren*, *begegnen*, *geschehen* 등의 동사가 제2형 분사형태로 형용사처럼 명사구 내에서 명사구 앞에서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들 사이에서도 문법성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을 구한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의 대부분은 완전히 문법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완전히 문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예문들을 완전히 문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본 논문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문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i)과 (ii)의 예문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적이라는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i) a. Der Unfall ist gestern passiert.
the accident is yesterday happened
b. ?Der gestern passierte Unfall
the yesterday happened accident
- (ii) a. Der Mann ist dem Gegner auf der Holzbrücke begegnet.
the man is the opponent on the wooden bridge met
b. ?der dem Gegner auf der Holzbrücke begegnete Mann
the the opponent on the wooden bridge met man

국한된 속성은 아니라는 증거로 우리는 다음 예문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이 예문들은 완료형을 만들 때 *haben*이 아닌 *sein*을 선택한다는 점을 예문 (18)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18) a. Ich bin/*habe die Arbeit durchgegangen
I am/have the work gone through
b. Er ist/*hat den Bund fürs Leben eingegangen
he is/has the union for the life entered into
c. Er ist/*hat die ganze Stadt abgelaufen
he is/has the whole city run off
d. Sie ist/*hat ihn geflogen
she is/has him flown
e. Sie ist/*hat ihn angegangen
she is/has him approached

그 뿐만 아니고 이들 예문에 쓰인 동사들이 타동사라는 증거를 우리는 수동형을 만들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예문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예문은 모두 해당 수동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타동사들과 이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 (19) a. Die Arbeit ist von mir durchgegangen worden
the work is by me gone through been
b. ??Der Bund fürs Leben ist von ihm eingegangen worden
the union for the life is by him entered into been
c. Die ganze Stadt ist von ihm abgelaufen worden
the whole city is by him run off been
d. Er ist von ihr angegangen worden
he is by her approached been

그러나 이들 동사들은 *sein*과 결합하는 자동사들이 주어와 연관해서 명사구의 부가어로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여타의 타동사들처럼 목적어가 핵심어로 등장하는 명사구에만 부가어로 등장한다. 이는 주어가 핵심어로 등장하는 (20)에 나오는 예문들이 모두 비문법적이고, 목적어가 명사구의 핵심어로 등장하는 (21) 예문이 모두 문법적인 것으로 쉽게 알 수 있다.

- (20) a. *der die Arbeit durchgegangene Lehrer
the the work gone through teacher
b. *der auf der Suche nach dem verlorenen Ring die Straße
the on the search for the lost ring the street
abgelaufene Junge
run off boy
c. *der den Polizist im Zorn angegangene Mann
the the policeman in the rage approached man

- d. *der den Bund fürs Leben eingegangene Mann
the the union for the life entered into man

- (21) a. die vom Lehrer durchgegangenen Arbeiten
the by the teacher gone through works
b. die auf der Suche nach dem verlorenen Ring abgelaufenen
the on the search for the lost ring run off
Straßen
steets
c. der von mir im Zorn angegangene Polizist
the by me in the rage approached policeman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와 ‘완료형에서의 sein과 결합하는 속성’이 모종의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을 다시 한 번 복잡하게 만드는 자료들이 더 존재한다. 타동사처럼 보이는 haben이나 besitzen 등의 동사는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아예 불가능하다.

- (22) a. Wir haben ein Landhaus besessen
we have a cottage possesses
b. *Das besessene Landhaus
(23) a. Wir haben einen Erfolg gehabt
we have a success had
b. *Der gehabte Erfolg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Zifonun, Hoffmann, and Strecker (1997, p.2210)에 따르면 원래 동사는 없는데 제2형 분사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사들이 독일어에 존재한다. 이들 자료는 어느 분석이든지 원래의 동사에서 제2형 분사를 유도해 관련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접근법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 준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 (24) a. abgedroschen (hackneyed, trite), abgeschmackt (tasteless), abgekämpft (worn-out), ...
b. befangen (inhabited), begabt (talented), benachbart (neighbouring), durchtrieben (sly), durchwachsen (marbled), zerfahren (rutted), unersetzt (stocky), unbedarft (naive), ...
c. unterbesetzt (understaffed), handverlesen (handpicked), handgeknüpft (handwoven), luftgetrocknet (air-dried), hausgemacht (homemade),
...

이들 단어들이 더욱 더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형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어휘화 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생산적이고 통사적인 연관성을 갖는 문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uftgetrocknet (air-dried)와 같은 단어는 (25a)와 같은 상응하는 문장을 가지고 있다.

- (25) a. an der Luft getrocknet
on the air dried
b. luftgetrocknet
air-dried

지금까지 우리는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 보았다.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기존의 문법서에 소개된 것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되는 자료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간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함을 우리는 실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문법이론의 발달에 따라 이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 절에서는 통사적이든 의미적이든 현대 문법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분석법을 자료에 근거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순수 통사적인 형상구조적 접근법과 그 문제점

어느 문법이론이든 순수하게 통사적 혹은 순수하게 의미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형상구조와 같은 통사적인 구조체에서 찾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의미적인 관계 혹은 의미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찾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개략적이거나 통사론적 접근법과 의미론적 접근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의미론적 접근법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우선 통사론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상구조에 근거한 접근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자료에 비추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측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통사론적 접근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석은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제안된 ‘원리와 매개변항 이론’ (Principles and Parameter Theory)의 ‘비대격성 가설’ (unaccusative hypothesis)에 입각한 형상구조적 분석을 꼽을 수 있다. 원래 Perlmutter (1978)가 ‘관계문법’ (Relational Grammar) 틀 내에서 제안한 자동사의 이분법을 Burzio (1986) 등이 이탈리아어 완료자동사의 선택이나 *Ne-*접어 부착현상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론에 도입한 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다. 독일어에는 Grewendorf (1989)가 *pro*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련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해 적용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인 통사론적인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독일어의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크게 구분되고, 자동사는 다시 일반적으로 자동사라고 알려진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s)와 그와는 문법적 성격이 다른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s)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형상구조적 기본구조를 할당하고 있다.

- (26)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s),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s) 및 타동사의 기본 형상구조
- a. 비대격동사: [S [[e] [VP NP V]]]
- b. 비능격동사: [S [NP [VP V]]]
- c. 타동사: [S [NP [VP NP V]]]

이러한 형상구조에 근거한 접근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자동사의 유일한 논항이 심층적인 어느 기저층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생성된다고 가정한다는 것이

다. 즉, 일반적인 자동사에 해당하는 ‘비능격동사’는 [NP S] 자리에 주어인 논항이 위치하고,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s)의 주어인 논항은 심층구조에서 일반적인 타동사의 직접목적어 자리인 [NP VP]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자동사를 형상구조적으로 구분한 이 분석법은 자동사의 이질적인 문법현상들이 이러한 형상구조적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논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는 대강 다음과 같은 기본 생각이 분석의 기저에 깔려 있다: 부가어화는 수동과 같은 절차를 거쳐 형용사화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심층구조에 [NP, S] 자리에 나오는 논항을 탈락시키고 [NP, VP] 자리에 나오는 논항을 상승시켜 명사구의 핵심어로 나오는 명사와 공지시 등을 통해 관련을 맺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비대격동사’는 상승시킬 목적어 자리에 논항이 존재해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가능하지만, ‘비능격동사’는 상승시킬 목적어 자리에 논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통사적 접근법은 Haider (1984), Grewendorf (1989) 등이 지적한 바 소위 ‘비대격 현상들’(unaccusative phenomena)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이 의도했던 대로 모순없이 통합적으로 문법적 현상들을 잘 설명한다면 이 접근법은 분명 하나의 설명적 가설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할 예정인 현상들로 인해 이러한 통사적 접근법은 관련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어 결국 그 타당성을 심하게 훼손 당하게 된다. 이제 통사적 접근법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동사가 아닌 동사구가 특정한 의미적 제약 때문에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통사적 접근법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 이유는 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형상구조적 차이를 꼽고 있고 형상구조적 차이는 더 근원적으로는 동사의 어휘적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일한 동사가 부가어에 의해서 어휘적 특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동사에 서로 다른 형상구조를 할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이 통사적 접근법은 내포하고 있다.

- (27) a. Der Gast ist gekommen
the guest is come
- b. *der gekommene Gast
the come guest
- (28) a. Der Kurier ist nach Mannheim gekommen
the courier is to Mannheim come
- b. der nach Mannheim gekommene Kurier
the to Mannheim come courier

둘째,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데, 제2형 분사형태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해답도 통사적 접근법은 쉽게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9)에 이미 앞에서 제시된 이러한 단어들을 읽기 쉽게 다시 제시한다.

- (29) a. abgedroschen (hackneyed, trite), abgeschmackt (tasteless), abgekämpft (worn-out), ...
- b. befangen (inhabited), begabt (talented), benachbart (neighbouring), durchtrieben (sly), durchwachsen (marbled), zerfahren (rutted), untersetzt (stocky), unbedarft (naive), ...
- c. unterbesetzt (understaffed), handverlesen (handpicked), handgeknüpft (handwoven), luftgetrocknet (air-dried), hausgemacht (homemade), ...

셋째,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비대격성 모순(unaccusative mismatches) 때문에 어느 한 설명도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설명을 위해서는 부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독일어에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에 이미 제시한 바대로 *kommen* (to come), *gehen* (to go) 등의 동사는 완료형을 만들때 *sein* (to be)과 결합하나, 다른 부가적인 요소가 없이는 그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 부가어로 쓰일 수 없다. 편의상 다음에 예를 다시 적는다.

- (30) a. Der Gast ist gekommen
 the guest is come
- b. *der gekommene Gast
- (31) a. Der Kurier ist gegangen
 the courier is gone
- b. *der gegangene Kurier

통사적 접근법에 의하면 *kommen* (to come), *gehen* (to go) 등의 동사는 완료형을 만들때 *sein* (to be)과 결합하기 때문에 (26a)의 형상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명사 부가어로도 쓰여야 할 것이나, 예에서 보듯이 그 동사들의 제2형 분사들은 다른 부가적인 요소가 없이는 그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 부가어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류의 동사들은 통사적 접근법에 문제가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비대격성 모순은 비단 이동 동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격 현상들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비대격성 모순은 통사적 접근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는 *bluten* (to bleed), *stinken* (to stink), *dauern* (to last) 등과 같은 동사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은 비인칭 수동을 허용하지 않아 (26a)의 형상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사 부가어로도 쓰이지 못한다.

- (32) a. *Es wurde geblutet.
 it was bled
- b. *das geblutete Kind.
 the bled child
- (33) a. *Es wurde stundenlang gedauert.
 it was for hours lasted

- b. *der stundenlang gedauerte Vortrag
the for hours lasted talk

(34) a. *Es wurde gestunken.
it was stunk

- b. *der gestunkene Hund
the stunk dog

같은 맥락에서 *schaden*(to damage)과 같은 동사의 문법적 양상도 통사론적 접근법에서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난다. 독일어에서 *schaden*은 접미사 *-ling*을 써서 명사로 파생될 수 있어 비대격동사의 형상구조를 취해야 하나, 비대격동사의 형상구조를 취하는 동사들에게서 가능한 명사 부가어화는 *schaden*의 경우 불가능하다.

(35) a. Schädling
pest

- b. *die sehr geschadete Tat
the very damaged act

다만, 통사적 접근법에서는 여러 현상들을 방금 소개한 형상구조적 차이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는 통합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포기하고 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구조적 차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우 과연 형상구조적 차이에서 설명의 단초를 찾으려는 통사적 접근법이 ‘독립적인 동기’(independent motivation)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임시변통적인 분석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2.3 순수 의미적인 접근법과 그 문제점

이미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어느 문법이론이든 혹은 어느 분석법이든 순수하게 통사적 혹은 순수하게 의미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의미론적 접근법은 의미론적인 개념이나 체계의 틀 내에서 제안된 접근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의미론적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석법들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다시 하위 분류할 수 있는데,

- ‘행위자역’ (Agent), ‘대상역’ (Theme) 등 전통적인 ‘의미역’ (θ -roles)을 이용한 방법,
- ‘완료성’ (terminativity), ‘변형성’ (transformativity) 등 동작상(Aktionsart)을 이용한 방법,
- ‘완결성’(telicity)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 어휘의미의 해체(decomposition)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Wunderlich (1985)가 첫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도로 꼽히고, 두번째 방법을 시도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Abraham (1985)과 Abraham (1993)을 들 수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독일어 문법서라고 할 수 있

는 Mannheim의 ‘독일어연구소’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IdS)에서 간행한 Zifonun, Hoffmann, and Strecker (1997)도 이런 맥락에서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번째 접근법은 결국 두번째 접근법과 기본 아이디어는 거의 동일한데, 최종적인 귀착점이 ‘완결성’ (telicity)으로 간주했다는 측면에서 분리시켜 생각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론을 도입한 논문으로는 독일어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Zaenen (1988)과 Zaenen (1993)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 접근법을 취한 사람들은 대개 어휘 의미론자들이거나 ‘의미역과 지시 이론’ (Role and Reference Grammar, RRG)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속한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우리는 van Valin (1987)과 van Valin (1990) 등을 꼽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최근에 나온 독일어 문법서라고 할 수 있는 Mannheim의 ‘독일어연구소’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IdS)에서 간행한 Zifonun, Hoffmann, and Strecker (1997)에서 취한 입장이 완료성 (terminativity), 변형성 (transformativity) 등 동작상(Aktionsart)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에서는 이들 의미론적 접근법 중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접근법을 사건적 특성(eventuality)에 따른 접근법으로 하나로 묶어 그 접근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이미 위에서 정리한 자료에 비추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측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Zifonun et al. (1997, p.22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하나 하나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자.

제2형 분사의 일부 부류, 즉 변형동사의 제2형 분사가 수의적인 전환규칙에 의해 형용사 부류로 전환될 수 있다.

Eine Teilklasse der Partizipien II, nämlich die Partizipien transformativer Verben, kann aber auch durch eine optionale Konversionsregel in die Klasse der Adjektive übergehen.

[Zifonun, Hoffmann, and Strecker (1997, p.2211)]

Zifonun et al. (1997, p.2211)은 ‘변형성’ (transformativity)을 동사의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형성’의 속성을 가진 동사들을 ‘변형동사’ (transformative verbs)라고 말하는데, Zifonun et al. (1997, p.1864)에서 정의하고 있는 변형동사는 Fabricius-Hansen (1975)에서 제시한 ‘변형성’ 개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변형동사 (transformative verbs)란 명확한 변화 후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지칭하는 동사를 가리킨다.⁶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체 동사들의 속성을 자질로 구분한 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6.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Verben der Zustandsveränderung, also Verben, die Ereignisse mit einem definierten Nachzustand bezeichnen

(36) 동사의 속성에 따른 분류 [Zifonun et al. (1997, p.1867)]

동사의 특성	기준	예
non-trans-formative [cursive]	- 상태의 변화 - 목시적인 동일한 동작상태 - 단계경계 연관성	<i>blühen</i> (to blossom), <i>schlafen</i> (to sleep), <i>wachen</i> (to watch), ... <i>beobachten</i> (to observe), <i>lieben</i> (to love), ...
non-trans-formative [intrans-formative]	- 상태의 변화 + 목시적인 동일한 동작상태 - 단계경계 연관성	<i>bleiben</i> (to stay), <i>weiterträumen</i> (to continue dreaming), <i>fortfahren</i> (to continue), ...
trans-formative	+ 상태의 변화	<i>aufblühen</i> (to blossom, open), <i>einschlafen</i> (to fall asleep), ... <i>zerstören</i> (to destroy) <i>aufbauen</i> (to build up), ...
telic	+ 단계경계 연관성	시작단계: <i>loslaufen</i> (to start running), ... 종결단계: <i>klingen</i> (to ring), <i>ausdiskutieren</i> (to thrash out),...

이미 위에서 암시했듯이, Zifonun et al. (1997, p.1864)에서는 동사의 속성 (chacteristics of verbs)을 일종의 자질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transformative]한 속성이 [telic]한 속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모든 동사가 이 둘 두 속성에 대해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이러한 속성적 분류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동사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속성들의 조합을 가진 동사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7) 동사의 속성들의 자질결합에 따른 분류의 예
[Zifonun et al. (1997, p.1869)]

trans-formative	telic	동사	(비-)완결성 실험
-	-	<i>schlafen</i> (to sleep), <i>arbeiten</i> (to work) <i>beobachten</i> (to observe)	5 Min. lang schlafen *in 5 Min. schlafen
+	-	-	-
+	not def.	<i>aufwachen</i> (to wake up), <i>aufblühen</i> (to blossom, open), <i>einschlafen</i> (to fall asleep), <i>ankommen</i> (to arrive)	*2 Sek. lang aufwachen *in 2 Sek. aufwachen
+	+	<i>zu/nach X laufen</i> (to run to/toward X) <i>zerstören</i> (to destroy), <i>aufbauen</i> (to build up)	*5 Min. lang zur Ecke gehen in 5 Min. zur Ecke gehen
-	+	<i>ein Problem ausdiskutieren</i> (to thrash out a problem)	*2 Sek. lang ein Problem ausdiskutieren in 2 Sek. ein Problem ausdiskutieren

그러나 이러한 ‘상성’ (aspectuality)에 근거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독일어 자료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원리적 설명도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독일어 동사 *enden* (to end)을 선택해서 그 증거를 대고자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독일어 동사 *enden*은 위의 동사의 속성 자질표에 의하면 [telic]라는 자

질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enden*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종착점’(end point)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동사이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종착점’을 의미하는 동사라는 사실은 (38a)에서 처럼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부사어와는 잘 결합하지만, (38b)처럼 같이 ‘시간의 일정한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와는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

- (38) a. Der Vortrag endete in einer Stunde.
the talk ended in an hour
b. *Der Vortrag endete stundenlang.
the talk ended for hours

한편 동사 *enden* (to end)은 [telic]라는 속성과 함께 [transformative]라는 속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동사 *enden*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상태의 변화’(change of states)를 수반하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그 시점을 중심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일한 상태의 연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문 (38)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준 시점이 오전 11라면 이 시각을 기준으로 이전 시간대에는 반드시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후 시간대에는 그 강연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사 *enden*은 틀림없는 [transformative] 속성을 가진 동사이다. 그러나 Zifonun et al. (1997)이 제시한 분석과는 달리 동사 *enden*의 제2형 분사형은 흥미롭게도 (39)에 제시된 것처럼 어느 부사구와 결합해서도 명사구 내에서 명사 앞에 나와 형용사처럼 쓰일 수 없다.⁷

- (39) a. *Der in einer Stunde geendete Vortrag
the in an hour ended talk
b. *Der stundenlang geendete Vortrag
the for hours ended talk

동사 *enden*과는 정 반대로 [transformative]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인데, 명사구 내에서 명사 앞에 나와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동사의 대표로 *landen* (to land)을 들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0) a. Flugzeuge sind auf dem roten Platz nur einmal gelandet.
airplanes are on the red plaza only once landed
b. die gelandeten Flugzeuge
the landed airplan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transformative]한 속성을 지닌 ‘변형동사’들의 제2형 분사형태만이 명사 앞에 나와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Zifonun, Hoffmann, and Strecker (1997)의 분석은 현대 독일어 동사의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transformative]한 속성을 지닌 동사인데도 명사부가어화가

7. 예문 (39)는 Kathol (1992)에서 인용한 것이다.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transformative]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사 인데도 명사부가어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독일어 문법서들은 대부분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 완료형을 만들 때 sein과 결합하는 동사들의 제2형 분사형태가 명사부가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DUDEN 문법을 예외로 들 수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Akademie문법(Heidolph et al. (1980))과 같은 문법서에서도 역시 Zifonun et al. (1997)에서의 '변형성' (transformativity)에 해당하는 '변화성' (mutativity)을 기본 속성으로 설정해 동사의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⁸

3. 새로운 제안: 어휘 의미의 함축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법

앞 절에서 우리는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이 문법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현상들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속성에 의해, 즉 동사의 '상성'(aspectuality)에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론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2.2 절에서는 통사론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주의적 접근법을 주장하고자 한다.

통합주의적 접근법은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은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체 문법틀 안에서 유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사의 어휘의미를 인지적 속성들의 '유형' (type)으로 추출하고 이들을 위계화시켜 '유형위계' (type hierarchy)를 설정한다. 그런 다음 각 어휘들이 설정된 '유형위계'에서 '다중계승' (multiple inheritance) 장치로 속성을 계승받도록 한다. '유형위계'에서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유형을 본 논문에서는 '수영향성' (affectedness)과 '명백한 장소의 이동을 함축하는 이동'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이라고 주장한다.

3.1 어휘의미의 추출과 위계화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에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하는 개체들의 속성은 일반

8. 완료형에서 어떤 조동사를 선택하느냐를 기준으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우리는 Abraham (1993)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그의 주장이 담긴 원문이다.

sein과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드는 술어들만이 부가어화를 허용한다. 부가어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완료형에서 sein을 조동사로 선택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어화 그 자체로는 비대격성에 대한 필요한 기준은 되지만, 충분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Nur sein-Prädikate erlauben Attribuierung. (...) Attribuierung impliziert sein-Auxiliarisierung, aber nicht umgekehrt; Attribuierung selbst ist wohl ein notwendiges, nicht aber ein hinreichendes Kriterium für Unakkusativität. [Abraham (1993, p.163)]

그러나 그는 결국 완료형에서 sein과 결합하는 동사들은 [terminative] 속성을 지니고 있는 동사들에 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위의 동사의 속성분류에서 보면 [telic] 속성을 지닌 동사의 일부만이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를 허용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미 [telic] 속성이 있는 enden동사의 경우에서 보았듯, 이 견해 또한 독일어의 현상을 제대로 기술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의미역’ (θ -roles)에 의해서 표시되어 왔다. ‘의미역’을 하나의 기본 개념으로 가정하고, 예를 들어 동사 *cut*과 *destroy*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의 구조를 Neo-Davidson식의 표기법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41) a. $\lambda x \lambda y \exists e [\text{cut}(e) \wedge \text{Agent}(x, e) \wedge \text{Theme}(y, e)]$
 b. $\lambda x \lambda y \exists e [\text{destroy}(e) \wedge \text{Agent}(x, e) \wedge \text{Theme}(y, e)]$

그러나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의미역’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학자들은 ‘의미역’이라는 개념이 다른 언어학적 기본 개념들, 예를 들어 주어나 목적어 등과는 달리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 바, 그런 학자들 중에서 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대안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의 대표로 우리는 Dowty, Ladusaw 등을 들 수 있다. 그런 문제제기는 결국 동사에 의해 표시되는 사건의 속성을 단언적으로 몇 개의 ‘의미역’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의미역’의 개념적 구성요소들을 동사의 의미적 속성에서 추출하여 그 추출된 의미 구성소들을 문법 기술에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Dowty (1991)의 논의로 이어진다.

Dowty (1991)는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사의 개념적 의미 구성소들이 기존의 ‘행위자역’과 ‘피행위자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42) ‘원형 행위자역’과 ‘원형 피행위자역’의 의미적 속성 (= (27) & (28), Dowty (1991, p.572))
- a. Co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Agent Proto-Role:
 A1: volitional involvement in the event or state
 A2: sentience (and/or perception)
 A3: causing an event or change of state in another participant
 A4: movement (relative to the position of another participant)
 (A5: exists independently of the event named by the verb)
- b. Co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Patient Proto-Role:
 P1: undergoes change of state
 P2: incremental theme
 P3: causally affected by another participant
 P4: stationary relative to movement of another participant
 (P5: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event, or not at all)

본 논문에서는 Dowty (1991)의 제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42)에 제시된 속성들은 동사의 개념적 의미로부터 추출될 수 있고, 역으로 동사의 개념적 의미는 (42)에 제시된 속성들로 표현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나 Dowty (1991)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될 수 있다.

첫째, Dowty (1991)가 제시한 속성들은 의미들간에 존재하는 위계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임의의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에 참여하는 어떤 개체가 A1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즉 의도적으로 사건에 참여하면 그 개체는 반드시 A2 속성, 즉 인지적 속성도 지니게 된다. 이점을 본 논문에서는 최근 HPSG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유형위계’(type hierarchy)를 이용해 속성들간에 위계가 존재하면 위계를 설정한다.

둘째, Dowty (1991)에서는 임의의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에 참여하는 어떤 개체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다른 연관된 속성을 지닌 개체도 있어야 한다는 ‘연계성’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A3속성을 지닌 개체가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P1개체도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 즉, 사건 내에서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개체가 있으면 개념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겪는 다른 개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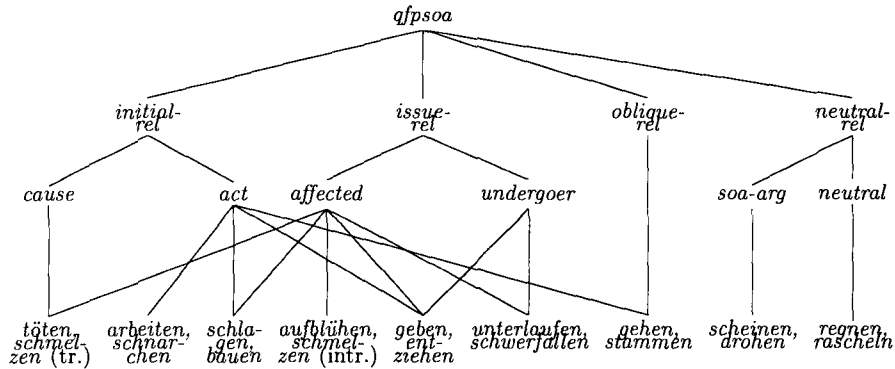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념적인 전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개념적 전체 안에 등장하는 개체들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쇄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시 HPSG의 개념을 적용해 ‘개념적 전체’를 ‘양화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건의 원상태’ (*quantifier-free-state-of-affairs, qfpsoa*)로 보고 각 개체들이 ‘유형위계’ (*type hierarchy*) 내에서 유기적인 연쇄를 이루도록 가정한다. 위에 제시한 두 가지는 Dowty (1991)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석의 기본 원리로 기능한다.

세 번째로 제안하는 분석의 기본 원리는 Dowty (1991)의 논의와는 관계가 없지만, 인지적으로 필수적인 점을 보완하는 원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개체가 임의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그 개체와 연관지을 수 있는 속성은 유일한 하나가 아니라 여럿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위계적인 구성을 통해서 일부 구현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개체가 개념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면 여러 속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직관에 가까운 속성들의 분포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동사의 어휘의미를 인지적 속성들의 ‘유형’ (*type*)으로 추출하고 이들을 위계화시켜 ‘유형위계’를 설정한 다음, 각 어휘들은 설정된 ‘유형위계’에서 ‘다중계승’ (*multiple inheritance*) 장치로 속성을 계승받도록 한다. ‘유형위계’를 이해의 목적으로 단순화시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위계’에 나타나는 각 교점들은 정의에 의하여 ‘유형’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43)에 제시된 유형들을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형들은 그 자체가 의미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유형을 설명할 지면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생략한다.

(43) 단순화된 ‘유형위계’와 대표적인 동사의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본 논문의 주장을 지금까지 제시한 분석 틀 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주장하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유형위계’(type hierarchy)에서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유형은 ‘수영향성’ (affectedness)과 ‘명백한 장소의 이동을 함축하는 이동’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이다.

3.2 이동동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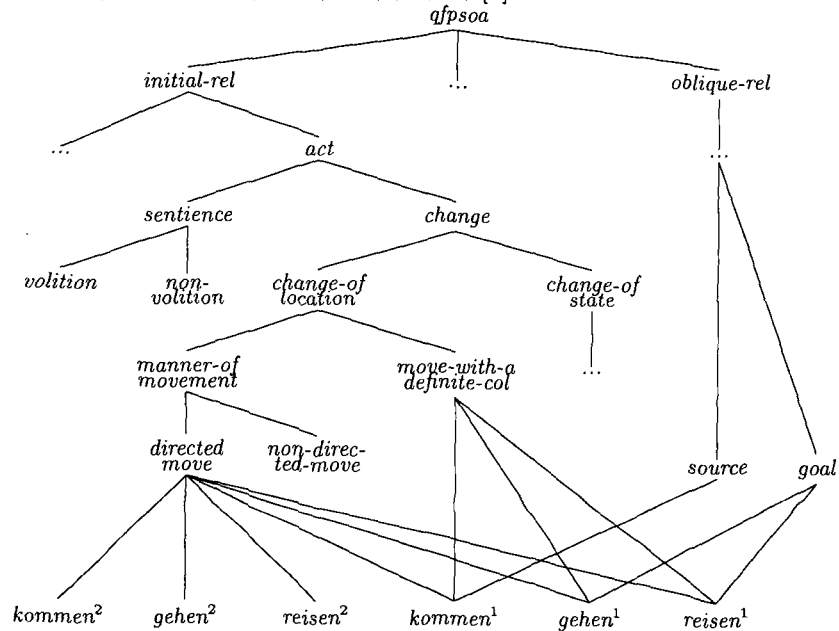
이동동사들은 부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속성들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동사는 대표적인 이동동사 할 수 있는 kommen (to come)과 gehen (to go)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동사들이다. 이들 동사는 (46)-(47)처럼 특정한 부사어와 함께는 명사부가어로 쓰일 수 있지만, (44)-(45)에서처럼 홀로 나와서는 명사부가어로 쓰일 수 없다.

- (44) a. Der Gast ist gekommen (kommen²)
the guest is come
- b. *der gekommene Gast
 the come guest
- (45) a. Der Kurier ist gegangen (gehen²)
the courier is gone
- b. *der gegangene Kurier
 the gone courier
- (46) a. Der Gast ist nach Mannheim gekommen (kommen¹)
the guest is to Mannheim come
- b. der nach Mannheim gekommene Gast
the to Mannheim come guest
- (47) a. Der Tourist ist nach Hamburg gegangen (gehen¹)
the tourist is to Heidelberg gone

b. der nach Hamburg gegangene Tourist
 the to Hamburg gone tourist

(46)-(47)에 쓰인 이동동사와 (44)-(45)에 쓰인 이동동사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들을 각각 윗첨자를 붙여 2와 1로 구분해 유형위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8) 이동동사의 '유형위계'와 다중계승의 예 [1]



(46)-(47)에 쓰인 이동동사들은 source나 goal과 같은 개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런 유형과 연쇄를 이루는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이라는 유형을 계승하기 때문에, 결국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의 하위에 등장하게 되어 제2형 분사의 명사 부가어화가 가능하지만, (44)-(45)에 쓰인 이동동사는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과는 상관없이 *directed-move*의 하위유형에만 속하기 때문에 제2형 분사형태의 명사부가어화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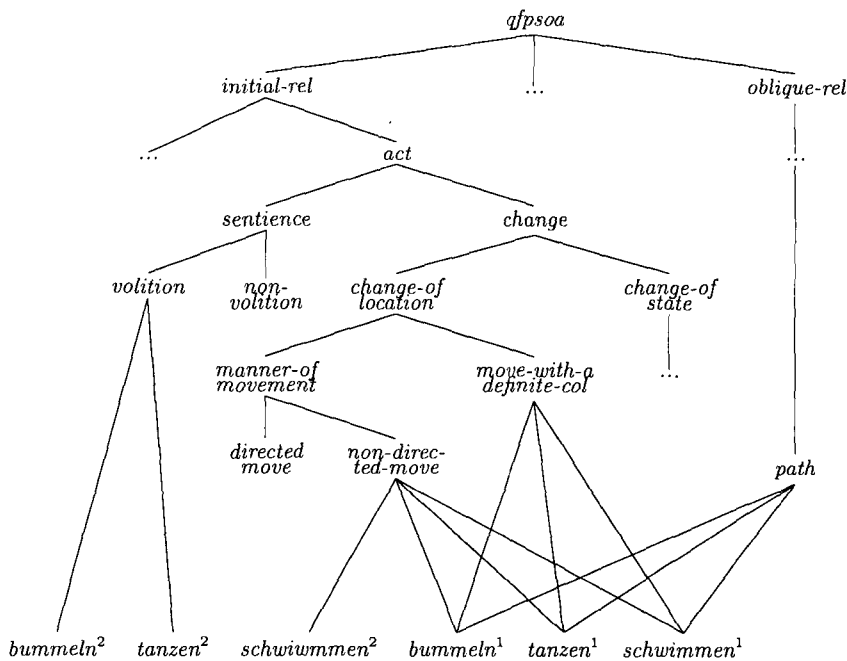
또 다른 이동동사들인 tanzen, bummeln, schwimmen 등을 살펴 보자. 이들 동사들도 쓰이는 용법에 따라 각 개별 동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휘의미는 다르다. 그들의 쓰임은 대강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49) a. Er hat den ganzen Nachmittag im Saal getanzt.
 he has the whole afternoon in the hall danced
 b. Er ist den ganzen Nachmittag quer durch den Saal getanzt.
 he is the whole afternoon across through the hall danced
- (50) a. Er ist/[?]hat im See geschwommen.
 he has in the lake swum

- b. Er is/*hat quer durch den Rhein geschwommen.
 he is across through the Rhein swum
- (51) a. Er hat/*ist mehr als ein Semester lang gebummelt, sonst
 he is more than one semester long strolled, otherwise
 wäre er schon lange mit seiner Dissertation fertig.
 would be he already long with his dissertation finished
- b. Er is/*hat durch die Altstadt gebummelt.
 he is through the old part of town strolled

위의 각 예문의 (a)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윗첨자 2를 붙여, 예문의 (b)에 등장하는 윗첨자 1이 붙어 있는 동사들과 구분하여 유형위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2) 이동동사의 ‘유형위계’와 다중계승의 예 [2]



tanzen, bummeln, schwimmen 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이 두 동사의 유형이 문법적으로 상이하게 행동한다는 증거를 들어 보자.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테스트로는 und zwar (in fact, namely)테스트가 있다. 일반적으로 und zwar 테스트는 보충어와 부가어를 구분하기 위한 테스트로 쓰인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두 가지 동사의 유형은 und zwar 테스트에 달리 행동하고 그래서 서로 구분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53) a. Er hat den ganzen Nachmittag getanzt, und zwar im Saal.
 he has the whole afternoon danced, and in fact in th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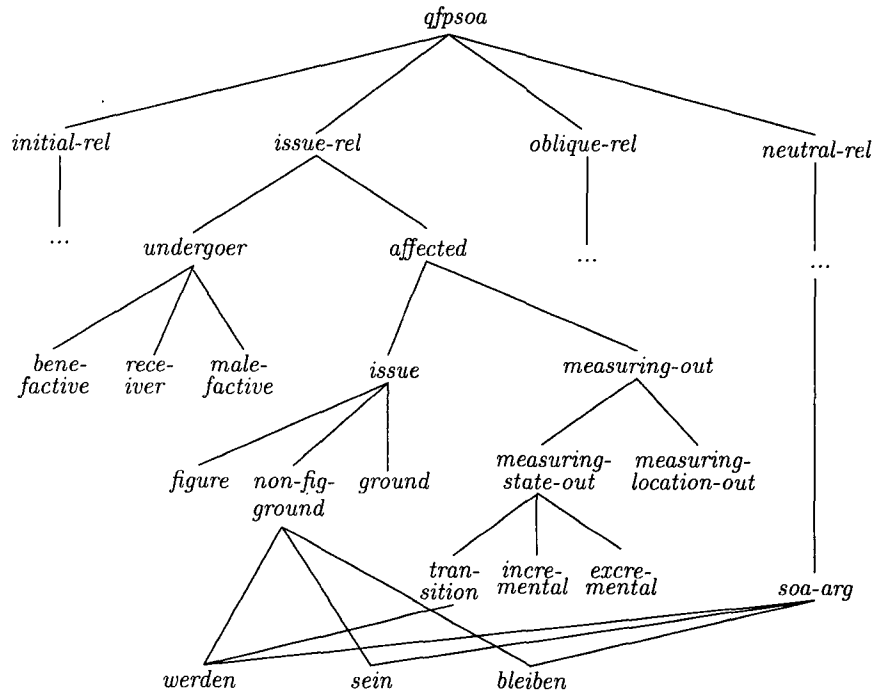
- b. *Er is den ganzen Nachmittag getanzt, und zwar quer
he is the whole afternoon danced, and in fact across
durch den Saal.
through the hall
- (54) a. ?Er hat geschwommen, und zwar im See.
he has swum, and in fact in the lake
b. Er is geschwommen, und zwar quer durch den Rhein.
he is swum, and in fact across through the Rhein
- (55) a. *Er hat gebummelt, und zwar mehr als ein Semester lang,
he is strolled, and in fact more than one semester long,
sonst wäre er schon lange mit seiner Dissertation
otherwise would be he already long with his dissertation
fertig.
finished
b. Er is gebummelt, und zwar durch die Altstadt.
he is strolled, and in fact through the old part of town

위에서 우리는 이동동사의 경우 제2형 분사형태가 명사부가어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유형위계에서의 유형의 하나인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 으로부터 계승을 받느냐 아니냐로 구분해서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특히 할 만한 사항은 제2형 분사형태의 명사부가어화의 가능/불가능성은 완료형에서 *sein* 을 선택하는가 하는 점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제안한 분석은 완료형에서 *sein* 을 선택하지만 명사부가어로 쓰일 수 없는 동사들의 문법적 양상을 설명할 길을 열어 놓은 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바로 이런 동사들, 즉 완료형에서 *sein* 을 선택하지만 명사부가어로 쓰일 수 없는 동사들이 어떤 유형위계를 갖는지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3.3 완료형에서 *sein* 을 선택하지만 명사부가어로 쓰일 수 없는 동사들

완료형에서 *sein* 을 선택하지만 제2형 분사형태가 명사부가어로 쓰일 수 없는 동사들로 우선 *sein*, *werden*, *bleibe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위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당연히 이 분석이 맞다면, 그 동사들의 제2형 분사형태가 명사부가어명사로 쓰일 수 없다. 이유는 유형위계에서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 에도 *affectedness* 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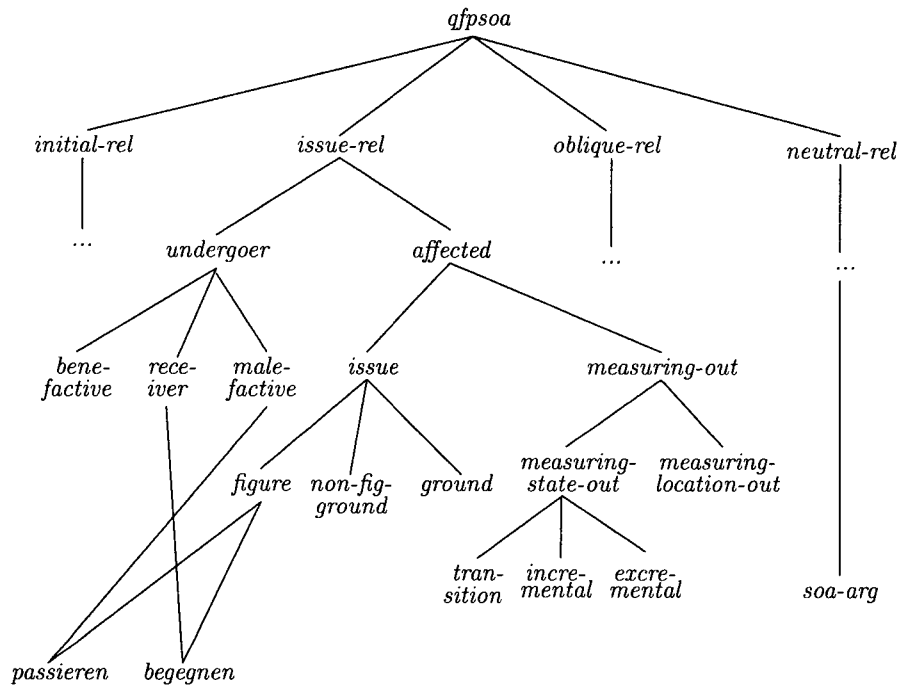
(56) sein, werden, bleiben의 ‘유형위계’와 다중계승의 예



완료형에서 sein을 선택하지만 제2형 분사가 명사부가어로 쓰이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사들의 유형으로 우리는 begegnen, passieren, geschehen을 꼽았다. 이들 동사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위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당연히 이 분석이 맞다면, 그 동사들의 제2형 분사가 명사 부가어명사로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유형위계에서 이들 동사들은 affectedness에서 자질을 계승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 제시된 유형위계는 다른 일반 타동사들과는 달리 이들 동사들이 문법성에 일치할 보이지 않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일반 타동사들이 표현하는 사건들은 그 내부 연쇄에서 전형적으로 적어도 한 개체는 사건을 유발하는 initial-relation에서 자질을 계승받는 유형위계를 갖지만, begegnen, passieren, geschehen 등의 동사는 두 개체 모두 issue-relation에서 자질을 계승받는다.

일반적으로 issue-relation에서 자질을 계승받는 개체들은 문법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begegnen, passieren, geschehen 등의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에 참여하는 두 개체들은 다른 일반 타동사와는 달리 두 개체간의 개념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일부 모국어 화자는 목적격으로 나오는 명사가 핵심어인 명사구에서 뿐 만 아니라 주격으로 나오는 명사가 핵심어인 명사구에서도 제2형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57) *begegnen*, *passieren*, *geschehen*의 ‘유형위계’와 다중계승의 예



3.4 타동사 및 기타 문제시되는 동사들

이미 2.1 절에서 논의했듯 대부분의 타동사들은 목적어를 핵심어로 하는 명사구를 형성하면서 제2형 분사를 써서 통사적으로 형용사처럼 명사구의 내부에 실현된다. 비대격동사들도 역시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가능한 동사이라는 점을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유형위계에는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미 앞 (48)에 제시한 유형위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이들 동사들은 *affectedness* 유형에서 자질을 계승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들 동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사건에서 적어도 개체중의 하나는 *affectedness* 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유형과 연결되어 있는 개체를 지칭하는 명사가 핵심어로 등장하는 명사구에 제2형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다.

- (58) a. der verfolgte Polizist
the chased policeman
- b. der Polizist, der jemanden verfolgt hat (= (58a))
the policeman who someone chased has
- c. der Polizist, den jemand verfolgt hat (≠ (58a))
the policeman whom someone chased has
- (59) a. Der Kurier ist gerade angekommen
the courier is just arr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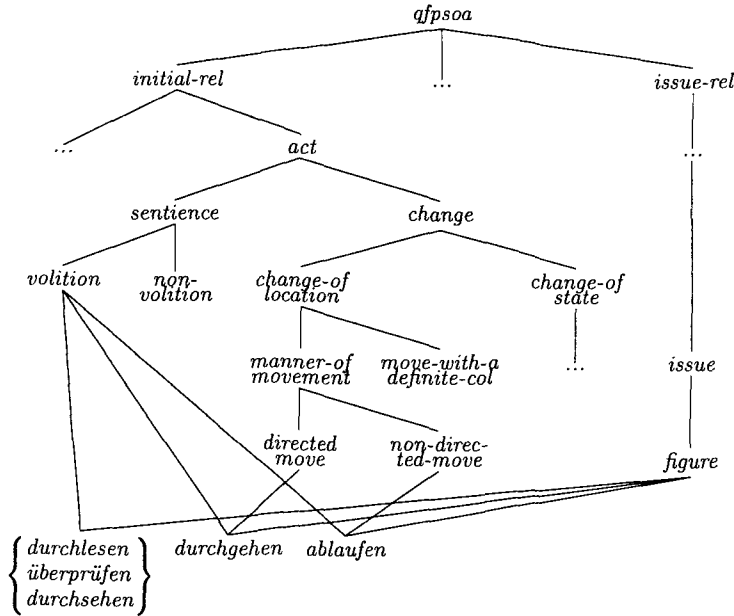
b. *der gerade angekommene Kurier

반면, 비능격동사들은 (48)에 제시된 유형위계에서 전형적으로 *initial-relation*에서 자질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사들은 ‘수영향성’ (*affectedness*)과 ‘명백한 장소의 이동을 함축하는 이동’ (*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의 하위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2형 분사의 부가어화가 불가능하다.

- (60) a. Der Student hat gearbeitet
the student has worked
b. *der gearbeitete Student

또한 완료형에서 *sein*과 결합하는 타동사들도 기존의 접근법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완료형에서 *haben*이 아닌 *sein*과 결합한다는 점만 다른 여타의 타동사와 차이를 보일 뿐 다른 점들은 모두 같다. 이들이 타동사라는 증거는 이미 앞 (19)에 제시한 것처럼 수동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제2형 분사가 형용사처럼 명사구내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일반 타동사가 그런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이들 동사들은 본 논문에서의 관심은 아니지만 어떤 동기에 의해서 형태론적으로 구성요소의 하나인 *gehen*이나 *laufen* 등 이동동사의 영향으로 전용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유형위계’에서 *directed move*와 *durchgehen*을 잇는 선과 *non-directed move*와 *ablaufen*을 잇는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질계승 선이 그런 전용된 사용을 반영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이들 동사의 유형위계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61) durchgehen, ablaufen, angehen 등의 ‘유형위계’와 다중계승의 예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는 원래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데, 제2형 분사형태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들 자료는 원형을 설정하고 제2형 분사형태를 그 원형에서 유도해 내지 않기 때문에 원형의 존재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

3.5 남은 문제들

Dowty나 Ladusaw 등이 제시한,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의미역’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상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학적 기본 개념들, 예를 들어 주어나 목적어 등과는 달리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본 논문의 기본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Dowty (1991)이 제시한 ‘원형적 행위자역’에 기여하는 속성과 ‘원형적 피행위자역’에 기여하는 속성을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수정을 거쳐 유형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각 개별 어휘 요소들에 대한 유형위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거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인지과학 등에서 원형범주(proto-type)와 주변범주(periphery)를 정하기 어려운 점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 그 자체의 연속성에 근거한 것이 전체 체계가 비과학적인 것은 아님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라는 인지적 범주를 인식할 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울새 (robin)를 떠올리고, 박쥐나 타조를 떠올리지 않는 현상과 동사의 어휘적 함축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어휘의미를 그 동사의 의미와 연결시

키기는 과정을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같은 맥락에서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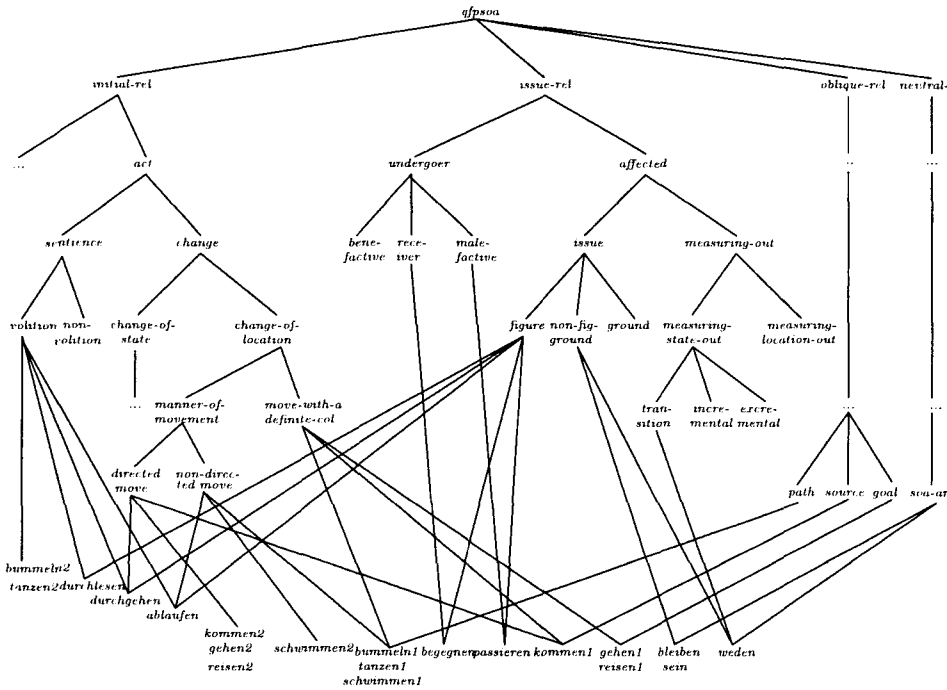
따라서 유형위계 설정의 어려움은 어려움이지 비과학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논리에 기반한 언어연구와 인지적 접근법에 의한 언어연구는 분명 상호 보완해야 하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대상인 제2형 분사의 형용사 전용 현상은 전통 독일어 문법서에서도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이 현상에는 상당부분 개념적 주변요소들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이 현상의 분석에 흔히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평가로 보인다.

4. 결론

본 논문은 현대 독일어에서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을 대상으로 어떠한 동사들이 이런 현상을 허용하고 어떠한 동사들이 허용하지 않는지를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우리는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이 문법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현상들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속성에 의해, 즉 동사의 '상성'(aspectuality)에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론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2.2 절에서는 통사론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주의적 접근법을 주장하고 실제로 분석을 이 시각에서 해 보았다. 통합주의적 접근법은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은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체 문법틀 안에서 유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사의 어휘의미를 인지적 속성들의 '유형'(type)으로 추출하고 이들을 위계화시켜 '유형위계'(type hierarchy)를 설정한 다음, 각 어휘들은 설정된 '유형위계'에서 '다중계승'(multiple inheritance) 장치로 속성을 계승받도록 한다. '유형위계'에서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유형을 본 논문에서는 '수영향성'(affectedness)과 '명백한 장소의 이동을 함축하는 이동'(movement with a definite change of location)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형위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논의가 옳다면, 본 논문은 동사의 제2형 분사가 명사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환현상에 대한 전혀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내용 중 미비점은 이미 3.5절에서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는다. 다만, 통합주의적 접근법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논항구조와의 연계성은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면적 제약으로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Abraham, Werner. 1985. Transitivity-correlates and their formal embedding in the grammar. *Groninger Arbeiten zur Germanistischen Linguistik (GAGL)*, 26:1-60.
 Abraham, Werner. 1993. Ergativa sind terminativa.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12:157-184.
 Burzio, Luigi. 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Reidel, Dordrecht.
 Dowty, Davi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547-619.
 Fabricius-Hansen, Catherine. 1975. *Transformative, intransformative, and kursive Verben*. Niemeyer, Tübingen, 2 edition.
 Grewendorf, Günther. 1989. *Ergativity in German*. Foris, Dordrecht.
 Haider, Hubert. 1984. Was zu haben ist und was zu sein hat: Bemerkungen zum infinitiv. *Papiere zur Linguistik*, 30:23-36.
 Heidolph, Karl Erich, Walter Flämig, and Wolfgang Motsch. 1980.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 Akademie-Grammatik)*. Akademie-Verlag, Berlin.
 Kathol, Andreas. 1992. Unaccusative mismatches in German. In *Proceedings of the 2nd Annual Conference of the Formal Linguistics Society of Midamerica (1991)*, pages 74-88.

- Perlmutter, Davi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Proceedings of the 4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LS 4)*, pages 157-189.
- Seibert, Anja. 1993. Intransitive constructions in German and the ergative hypothesi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4, University of Trondheim, Dragvoll, Norway.
- van Valin, Robert. 1987. The unaccusative hypothesis vs. lexical semantics: Syntactic vs. semantic approaches to verb classif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17 (NELS 17)*, pages 641-661.
- van Valin, Robert. 1990. Semantic parameters of split intransitivity. *Language*, 66:221-260.
- Wunderlich, Dieter. 1985. Über die argumente des verbs. *Linguistische Berichte*, 97:183-227.
- Zaenen, Annie. 1988. Unaccusative verbs in Dutch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CSLI Reports 88-123, CSLI, Stanford University.
- Zaenen, Annie. 1993. Unaccusativity in Dutch: Integrating syntax and lexical semantics. In James Pustejovsky, editor,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Dordrecht, pages 129-161.
- Zifonun, Gisela, Ludger Hoffmann, and Bruno Strecker. 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volume 3 of *Schriften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Walter de Gruyter, Berlin.

접수일자: 2002년 5월 3일
게재결정: 2003년 6월 7일